

맞벌이가정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성별 방과후보호, 가정환경과 자기조절학습능력 및 정서·행동문제의 관계*

천희영**

The Effects of After-school Care, Family Environment on
Self-regulatory Learning Ability and Emotional-behavioral Problems in
Each Gender of Early School-aged Children from
Dual Income Families

Chun, Hui Young

본 연구의 목적은 맞벌이가정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성별로 입학후 3년간 방과후 보호자부재의 변화, 그리고 방과후보호, 가정환경(가구소득, 부모감독)과 자기조절학습능력 및 정서·행동문제 간의 관계 분석이었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초1패널 3학년으로 입학 후 3년간 맞벌이 양친부모 가정에 속한 남아 526명, 여아 483명을 대상으로, 3년간의 방과후 보호자부재와 방과후보호를 분류하고 연구변인별 점수를 산출한 후 Friedman검증, t 검증,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하였다. 입학 후 3년간 방과후 보호자재 상태는 남아와 여아 약 45%, 50% 수준이며, 점차 일시적 또는 지속적 보호자부재 상태로 변화를 보였다. 방과후보호에 따라 가구소득과 자기조절학습능력은 남녀 모두에서, 부모감독은 여아, 정서·행동문제는 주로 남아의 경우에 차이가 있었다. 남녀 모두에서 가정환경은 자기조절학습능력, 정서·행동문제와 유의한 관계가 있고, 자기조절학습능력과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방과후보호와 가정환경의 상대적 영향은 차이가 있었다. 아동의 성을 고려한 방과후보호, 고소득가정 자기보호 아동에의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었다.

▶ 주제어 : 방과후보호, 부모감독, 가구소득, 자기조절학습능력, 정서·행동문제, 아동

* 본 논문은 2014학년도 고신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2014년도 한국보육지원학회 추계학술대회 포스터발표 논문임.

** 제 1저자(교신저자) : 고신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E-mail : chunhy@kosin.ac.kr)

I. 서론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면서 2013년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국가 평균 보다는 낮지만 50.2%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기혼여성 중 취업자는 49.5%, 맞벌이가정인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3.3%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된다(여성가족부, 2014b; 통계청·여성가족부, 2014). 또한 핵가족의 보편화와 맞물려 취업 여성은 자녀 양육과 취업을 병행하는 것이 유연하지 못한 근무환경에서 자녀의 양육지원과 돌봄서비스를 가장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인식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통계청·여성가족부, 2014). 정부는 취업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고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영유아기 자녀를 위한 보육 및 아이돌봄(여성가족부, 2014a), 학령기 아동을 위한 방과후 돌봄(교육부, 2014; 보건복지부, 2014) 정책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중 방과후 스스로를 보호하는 아동의 비율이 비맞벌이가정(17.5%)에 비해 맞벌이가정(51.3% ~ 84%)에서 높고 그들 중 46.4%는 거의 매일 자기보호 상태에 있다는 보고(김지경, 김균희, 2013; 서혜전, 2012)는 맞벌이가정이 성장기 자녀의 보호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사회성 발달 측면에서 청소년기에는 방과후 스스로의 보호가 도움이 되지만(Green, Hynes, & Doyle, 2011) 학령기는 방과후 성인의 보호가 여전히 필요한 시기이다. 학령기 아동은 발달특성상 신체활동이 활발하고 호기심이 높아 성인의 보호가 없으면 안전사고, 유해환경에의 노출 위험이 높다(윤소영, 안창희, 하은아, 서선영, 전해인, 2004; 최정미, 오선영, 2004). 아동의 자기보호는 감정과 행동 발달에 잠재적 위험과 적응 장애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고(Garbarino, 1984), 적응상의 문제는 학령전기에 비해 학령기의 아동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된다(Cain & Hofferth, 1989; Votruba-Drzal, Coley, & Chase-Lansdale, 2004). 그리고 학령기 저학년의 아동은 학교 보다는 방과후에 더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하므로 자기보호 상태에서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점에서 맞벌이가정의 학령기 초기 아동의 방과후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 관련하여, 어머니들은 아동이 스스로를 돌보려면 5학년은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나(최경순, 정현희, 1996) 1학년에 비해 4학년에서도 자기보호 아동이 많이 발견되며(김지경, 김균희, 2013) 연령이 높은 아동일수록 자기보호 경험이 많다(김세원, 손주영, 2011; Rodman & Pratto, 1987)고 보고되었다. 그러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대상의 방과후보호 관련 선행연구는 소수 이루어졌고 예외 없이 단일 학년을 대상으로만 분석·보고 되었다(예; 김지경, 김균희, 2013; 서혜전, 2012).

맞벌이가정의 자녀가 방과후 자기보호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은 가정환경의 지위변인인 가구 소득과 관련이 있다(김세원, 손주영, 2011). 저소득 가정의 부모는 생계유지를 위해 일을 해야 하고 일하는 동안 자녀양육 대행 비용을 부담할 경제적 여유가 없으므로 자녀는 자기보호를 해야 할 상황이 놓이게 되는 것이다(최경순, 정현희, 1996). 같은 맥락에서 가정의 경제 수준이 낮을수록 방과후 지속적 자기보호 상태의 아동이 될 확률이 높고, 가구소득이 낮은 아동이 높은 아동보다 자기보호의 경험이 더 많다고 보고된 바 있다(김은지, 2014; Cain & Hofferth, 1989; Votruba-Drzal et al., 2004). 그러나 맞벌이로 가구소득이 높은 가정에서 아동의 자기보호 비율이 높다는 선행연구도 발견되었다(Kerrebrock & Lewit, 1999; Vandivere, Tout, Zaslow, Calkins,

& Capizzino, 2003). 따라서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방과후보호와 가구소득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예; 김세원, 손주영, 2011; 최경순, 정현희, 1996)은 방과후보호와 아동발달의 관계를 충분히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맞벌이가정 아동의 방과후보호 상태는 보통 성인의 지도와 보호가 있는 성인보호, 혼자서 또는 형제와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자기보호로 크게 나뉜다(Rodman, Pratto, & Nelson, 1985). 이때 자기보호는 성인 보호자가 없어서 보호를 못 받는다는 물리적 측면에 초점을 둔 개념인 반면 보호자가 아동에 대한 관심이나 양육을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소홀하게 하는 부모방임 또는 부모감독은 내용적 측면에 초점을 둔 개념이다(이봉주, 조미라, 2011). 자녀의 학교 내외 생활과 시간을 알고 보살펴주는 부모감독은 성인의 보호가 필요한 학령기 아동의 발달과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양육태도로 간주된다(김은지, 2014; 임선아, 2013; 허묘연, 2000). 방과후 성인보호 상태에 있는 아동은 물론 맞벌이 부모의 부재로 자기보호 상태에 있는 아동도 부모의 양육행동이나 태도에 의해 주어진 양육문화 속에서 인지적·사회정서적으로 발달한다(윤영애, 2010)는 점에서 부모감독은 가정환경의 중요 과정변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맞벌이가정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감독 수준이 방과후보호 방법에 따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단독으로 또는 가구소득과 함께 가정환경 특성으로서 초등 저학년 시기 아동의 발달에 어떻게 관계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이 시기의 발달이 이후 발달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한편 학령기 초기의 아동은 발달과업으로 학업에의 성실성을 발달시켜 가야하며 학업 관련 태도와 행동이 학교생활적응의 구성요인(김세영, 2006; 김은지, 2014; 김혜금, 양숙경, 2014)이 되는 만큼 본격적으로 학습이 시작되는 초등학교 4학년 이전에 학업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학습하는 동안 학습의 주체자로서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인지, 동기, 행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자기조절학습능력(오숙영, 2012; Pintrich, 1995; Zimmerman & Martinez-Pons, 1986)은 학업성취를 결정하는 학습자의 중요 특성으로서 학업성취 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신명희, 이혜원, 2010). 이것은 아동의 연령 증가에 따라 개인·환경·행동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하는 능력이다(Paris & Newman, 1990). 김세원과 손주영(2011), 김은지(2014)는 방과후 자기보호 수준이 높은 아동의 학업성취도가 낮고, 백정재와 이재연(1997)은 적절한 성인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정환경이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성공적인 학업성취를 촉진하며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지만(허묘연, 2000; Chen, Dong, & Zhou, 1997) 방임형 양육태도를 포함하는 부정적 양육태도를 보이는 어머니의 자녀는 성적이 낮다고 보고되었다(유숙경, 이승희, 2012). 따라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학습 추진 능력 즉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방과후보호 상태, 가구소득과 부모감독과 같은 가정환경과 어떤 관계를 가지며 또한 영향 받아 발달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학업 측면에서의 학교생활적응 기초를 마련하는데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아동은 구조화된 집단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학교생활 전반에서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아동이 보이는 정서와 행동상의 문제는 유아기 때보다 적극적으로 부각되고 교육·상담·치료의 대상으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다(조봉환, 임경희, 2003). 일반적으로 정서·행동문제는 불안·우울과 같은 내재화 문제 즉 정서문제와 주의산만, 공격성, 과잉행동과 같은 외현화 문제 즉 행동문제를 포함한다(Kauffman & Hallahan, 1981). 유아기 및 학

령기의 정서·행동문제가 중학생, 성인기까지 지속적으로 영향 미칠 수 있으며(김은주, 이승희, 2013; 유숙경, 이승희, 2012), 학령기 초 행동문제와 낮은 학업성취도가 동시에 출현하는 빈도가 최소 10% 이상이고 이는 이후 학교 및 사회 부적응과 관계된다(Gray, Carter, Briggs-Gowan, Jones, & Wagmiller, 2014)는 연구들은 학령기 초기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발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학령기 아동의 방과후 자기보호 상태는 내재적 및 외현적 문제의 발달에 영향 미친다고 보고되었고(Aizer, 2004), 학령기 자기보호 아동이 성인보호 아동에 비해 심리·정서 적응력과 사회행동 적응력이 낮고(김세원, 손주영, 2011) 낮은 또래효율성과 높은 불안 행동문제(김명숙, 정영숙, 1997)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부모의 자녀 보호 수준이 낮고 무관심한 경우 과잉행동-충동성 문제의 발생과 관계가 있고(이수진, 오경자, 2014) 자기보호 아동 부모가 적절한 감독 즉 자녀의 생활전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자녀의 일상생활에 긍정적 영향요인으로 작용하며(김은지, 2014), 부모의 실제 감독이나 통제가 없는 자기보호 상태는 아동에게 부모 부재에 따른 정서 불안정성을 보이게 한다(최경순, 정현희, 1996; Halpern, 1992)는 연구결과들은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와 부모감독과의 부적인 관계를 예측하게 하였다. 또한 빈곤 가정의 아동은 경제적 빈곤에서 파생되는 사회적 발달과 고립감을 느끼기 쉽고 낮은 학교적응도를 보이며(박순주, 심혜원, 2012), 빈곤에 의해 사회적 혹은 정서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강희경, 2003; 김광혁, 2007), 따라서 맞벌이가정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발달은 방과후보호와 가정환경으로서의 부모감독 및 소득수준과 관련하여 이해될 필요가 있었다.

초등학교 아동의 방과후보호를 다룬 최근의 연구를 살펴보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KCYPS) 데이터를 활용하여 김지경과 김근희(2013)는 1학년과 4학년 아동의 자기보호 일수에 대한 영향요인을 밝혀 돌봄서비스 수요층 결정을 위한 자료를 제공한 바 있으나 자기보호일수에 따른 아동발달의 질적 차이에 관해 다루지는 않았다. 이러한 측면을 보완하여 동일한 패널데이터로써 2학년 아동의 정서발달과 방과후 자기보호의 관계(서혜전, 2012), 4학년 아동의 자기보호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김은지, 2014), 5학년 아동의 부정적 자아개념과 학업성취·자기학습 통제능력에 대한 자기보호의 영향(이준호, 2012; 이준호, 박현정, 2012)이 연구되었다. 그리고 김세원과 손주영(2011)은 초등 고학년 저소득가정 아동 대상으로 자기보호와 적응을 연구한 바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만을 대상으로 방과후보호를 다룬 연구는 서혜전(2012), 오선영과 최정미(2004), 최경순과 정현희(1996), 최정미와 오선영(2004)의 연구 등 소수만이 발견되었고 방과후보호의 상태 결정을 위해 자기보호의 일수와 일 평균 자기보호 시간 두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아동의 방과후보호 유형을 결정한 연구 중 연구대상의 최저 학년은 2학년 아동이었다(서혜전, 2012). 1학년을 포함하여 맞벌이가정 초등 저학년 아동만을 대상으로 방과후보호 상태의 종단적 변화를 살펴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아가 초등 저학년 대상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을 다룬 연구 및 초등 저학년동안의 방과후보호 경험과 가정환경으로서의 소득수준과 부모감독이 자기조절학습능력과 정서·행동문제 변인 각각에 상대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다룬 선행연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저소득 환경이 양육태도와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조절학습능력(임선아, 2013), 정서·행동문제의 발달(최경순, 정현희, 1996)에 영향을 미치며, 자기보호 상황의 아동에게 적절한 부모감독이 보호요인의 역할을 한다(김은지, 2014)는 선행연

구 결과는 영향 변인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은 학교 준비도의 핵심 요소가 되는 사회 정서적 행동기술의 발달(Winsler, Kim, & Richard, 2014) 및 행동문제(Gray et al., 2014), 부주의(이수진, 오경자, 2014), 방과후 자기보호 아동이 보이는 적응과 불안 정서(이재연, 강성희, 1996; 이준호, 2012; 최정미, 오선영, 2004)에서 성차가 발견된 점을 고려하여 성별로 분리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이상과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KCYPS 초1 패널의 1~3차년도 종단자료를 사용하여 맞벌이가정 아동의 성별로 초등학교 입학 후 3년간 방과후 보호자부재의 변화가 어떠한지, 3년간의 방과후보호 경험과 가정환경이 자기조절학습능력 및 정서문제의 발달과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그럼으로써 맞벌이가정의 초등학교 저학년 자기보호 아동의 발달과 교육적 지원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궁극적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가 설정되었다.

1. 맞벌이가정 아동의 성별 초등학교 입학 후 3년간 학년에 따른 방과후 보호자부재의 변화 양상은 어떠한가?
2. 맞벌이가정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성별 방과후보호에 따라 가정환경, 자기조절학습능력, 정서·행동문제는 각각 차이가 있는가?
3. 맞벌이가정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성별 가정환경은 자기조절학습능력, 정서·행동문제와 각각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4. 맞벌이가정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성별 방과후보호와 가정환경이 자기조절학습능력 및 정서·행동문제 각각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KCYPS 초1 패널 대상의 제1차(2010년)~제3차(2012년) 조사 데이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1. 분석대상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KCYPS 초1 패널 3차년도 데이터의 초등학교 3학년 아동 1009명(남아 526명, 여아483명)이었다. 분석대상자의 선정을 위해 먼저 초1 패널 아동 2342명 중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방과후 보호자부재 문항에 성실히 응답하여 매 학년 방과후 보호자부재의 범주화가 가능한 2160명을 선정하였다. 둘째, 이들 중에서 가족의 구성원이 양친부모와 자녀이며, 적어도 1학년부터 3학년 조사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가 계속 일을 하고 있다고 확인된 아동은 1010명이었고 성별을 무응답한 1명을 제외한 1009명을 최종 분석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아동의 성별로 부모 특성과 가구소득에 관한 정보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 분석대상 아동의 성별 부모 특성과 가구소득에 따른 빈도(%)^a (N=1009)

특징	남아(n=526)		여아(n=483)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연령	30대 이하	148(28.2)	305(58.2)	167(34.6)	313(64.8)
	40대	359(68.5)	218(41.6)	304(62.9)	167(34.6)
	50대 이상	17(3.2)	1(.2)	12(2.5)	3(.6)
학력	고졸이하	200(38.2)	217(41.5)	186(38.7)	201(41.8)
	전문대졸	93(17.7)	111(21.2)	82(17.0)	127(26.4)
	대졸	186(35.5)	170(32.5)	182(37.8)	132(27.4)
	대학원졸	45(8.6)	25(4.8)	31(6.4)	21(4.4)
종사상	임금/봉급근로자	367(70.6)	373(72.4)	317(66.6)	344(72.7)
지위	고용원을 둔 사업주	64(12.3)	22(4.3)	69(14.5)	23(4.9)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87(16.7)	68(13.2)	88(18.5)	58(12.3)
	무급가족종사자	2(.4)	52(10.1)	2(.4)	48(10.1)
가구소득 (연간)	3000만원 미만		56(10.9)		48(13.2)
	3000만원 대		109(21.2)		71(19.5)
	4000만원 대		96(18.6)		95(26.0)
	5000만원 대		94(18.3)		98(26.8)
	6000만원 대		53(10.1)		53(14.5)
	7000만원 이상		107(20.8)		0(.0)

a : 특징별 빈도의 합은 무응답에 따라 차이가 있음.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남아와 여아의 부모 특성은 유사한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의 연령은 40대, 30대의 순으로, 모의 연령은 30대, 40대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와 모 모두 학력은 고졸이하, 대졸의 순으로 많고, 종사상 지위는 임금/봉급 근로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그 다음을 차지함을 알 수 있었다. 연간 가구소득은 남아의 경우 3000만원대(21.2%), 7000만원 이상(20.8%)의 순으로, 여아의 경우 5000만원대(26.8%), 4000만원대(26.0%)의 순으로 많은 분포를 보여 주었다.

2. 조사도구

1) 방과후 보호자부재와 방과후보호

KCYPS에서는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보건복지가족부, 2009)에서 사용한 문항을 수정·보완한 2개 문항 즉 보호자의 주당 부재일수, 1일 부재 시간으로 방과후 보호자부재를 조사하였다. 주당 부재일수는 ‘거의 없다’ (1점)~ ‘거의 매일’ (4점)의 4개 범주에, 1일 부재시간은 ‘1시간 미만’ (1점)~ ‘4시간 이상’ (4점)의 4개 범주에 따라 아동이 반응하도록 되어있다. 이 문항들에 대한 반응으로써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매년 방과후 보호자부재 유형(이준호, 2012)을 ‘보호자재’, ‘일시적 보호자부재’, ‘지속적 보호자부재’로 나누었다. 나아가 방과

후보호 변인은 초등학교 입학 후 3년간의 방과후 보호자 부재 분포를 고려하여 3년간 보호자재에 해당하는 ‘성인보호’, 최소 1년 이상 일시적 또는 지속적 보호자부재의 상태에 해당하는 ‘자기보호’의 두 하위범주로 나뉘었다.

2) 가정환경

본 연구에서 가정환경은 연간 가구소득, 부모감독의 두 변인을 포함한다. 부모감독은 본 연구의 용어 정의에 따라 KCYPS의 방임 측정문항(김세원, 2003; 허묘연, 2000)으로 조사되었다. 자녀의 일상경험과 적응에 대한 주의, 탐지와 관련된 일련의 부모행동이 부모감독을 의미한다(천희영, 옥경희, 김미해, 2001; Dishion & McMahon, 1998)는 데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부모감독은 부모(보호자)가 아동 자신의 학교생활, 건강과 주생활에 얼마나 관심과 지식이 있고 반응하는가를 의미한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청소년과 달리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부모는 자녀의 양육과 보호를 위한 관심, 지식을 가지고 행동하는데 부모감독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 KCYPS 부모방임의 문항을 내용 분석한 결과 김세원(2003)과 허묘연(2000)의 부모감독(감독지식)과 방치 요인을 복합적으로 측정한다고 볼 수 있어 KCYPS 부모방임 측정문항으로써 본 연구의 부모감독 개념을 측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부모님은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시나요?”와 같은 4점 척도의 4개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61이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을 역채점하고 그 문항 평균점수를 부모감독 점수로 간주하였으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감독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가정환경 변인의 또 다른 하위변인인 가구소득은 연간 가구소득 금액으로 조사되었다.

3) 자기조절학습능력

자기조절학습능력은 학습에 대한 기본 태도와 관련되는, 학습자가 주도적인 자기학습을 위한 동기와 행동의 효과적 통제 능력(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으로, KCYPS에서는 김세영(2006), 양명희(2000)의 자기조절학습능력 측정도구를 재구성한 문항들을 수정, 보완한 18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초등학교 3학년 아동 대상의 자기조절학습능력 측정 타당성을 확인하는 요인분석 결과, 성취가치(8개 문항), 학습시간관리(5개 문항), 행동통제(4개 문항)의 세 하위차원, 17개 문항으로 구성됨을 알 수 있었다. 4점 척도로 반응하는 문항의 신뢰도는 하위차원별로 .89, .86, .73이었고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91로 나타났다. 각 문항의 응답점수를 역채점하고 하위차원별로 문항 평균점수를 해당 자기조절학습능력 점수로 간주하였다. 이에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성취에 대한 가치를 높게 부여하고 성취가치, 학습시간관리와 학습관련 행동의 통제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4) 정서·행동문제

내재적 정서문제와 외현적 행동문제를 의미하는 정서·행동문제는 5개 하위변인으로 구성, 조사되었다. 즉 주의비집중(7개 문항), 공격성(6개 문항), 신체증상(8개 문항)은 조봉환과 임경희(2003)의 척도를, 사회적 위축(5개 문항)은 김선희와 김경연(1998)의 척도를, 우울(10개 문항)은 김광일, 김재환 그리고 원호택(1984)의 우울 척도를 각각 수정한 문항들으로써 측정되었다. 4점 척도의 반응양식에 따른 점수를 역채점하고 문항 평균점수를 산출하였으므로 점수가 높

을수록 하위변인별 정서·행동문제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하위변인 및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83~.92의 범위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연구문제1. 즉 초등학교 입학 후 3년간 아동의 성별로 학년에 따른 방과후 보호자부재의 변화 양상이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 성별·학년별로 방과후 보호자부재의 세 범주별 빈도를 산출, 분석하였다. 그리고 보호자재를 1, 일시적 보호자부재를 2, 지속적 보호자부재를 3으로 구분하고 학년에 따라 범주의 변화가 유의한 지를 Friedman 검증 하였다.

연구문제2. 즉 아동의 성별로 방과후보호에 따라 가정환경(부모감독, 가구소득), 자기조절학습능력, 정서·행동문제가 각각 차이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 방과후보호를 독립변인으로 각각 *t* 검증 하였다.

연구문제3. 즉 아동의 성별 가정환경이 자기조절학습능력, 정서·행동문제와 각각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기 위해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연구문제4. 즉 아동의 성별로 방과후보호와 가정환경이 자기조절학습능력과 정서·행동문제 각각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알기 위해 방과후보호와 가정환경의 두 하위변인, 그리고 이들 세 변인간의 2원 및 3원 상호작용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자기조절학습능력과 정서·행동문제의 하위차원(또는 하위변인)을 각 종속변인으로 회귀분석하였다. 범주변인인 방과후보호는 성인보호 1과 자기보호 2로, 상호작용 변인의 경우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인 점수를 평균 중심화하여 산출된 점수로 각각 변환하였다. 독립변인들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였고, 회귀분석마다 분산확대지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확인하여 변인 간 다중공선성이 없다는 것과 Durbin-Watson값에 따라 잔차의 독립성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하였다. 유의한 상호작용 변인의 도식화를 위해서 연속변인을 백분위의 상 30%, 하 30%를 기준으로 세 집단의 범주변인으로 변환하고 집단간 차이를 *t*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회귀모형은 다음과 같다.

$$Y = \alpha + \beta_1\chi_1 + \beta_2\chi_2 + \beta_3\chi_3 + \beta_4\chi_1\chi_2 + \beta_5\chi_1\chi_3 + \beta_6\chi_2\chi_3 + \beta_7\chi_1\chi_2\chi_3 + \epsilon$$

Y: 자기조절학습능력 또는 정서·행동문제

χ_1 : 방과후보호

χ_2 : 부모감독

χ_3 : 가구소득

$\chi_1\chi_2$: 방과후보호와 부모감독의 상호작용

$\chi_1\chi_3$: 방과후보호와 가구소득의 상호작용

$\chi_2\chi_3$: 부모감독과 가구소득의 상호작용

$\chi_1\chi_2\chi_3$: 방과후보호, 부모감독, 가구소득의 상호작용

III. 연구결과

초등학교 입학 후 3년간 아동의 성별로 학년에 따른 방과후 보호자부재의 변화 양상을 알기 위해 3년간 방과후 보호자부재 범주의 조합별 빈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초등학교 입학 후 3년간 방과후 보호자부재 범주의 조합에 따른 아동의 성별 빈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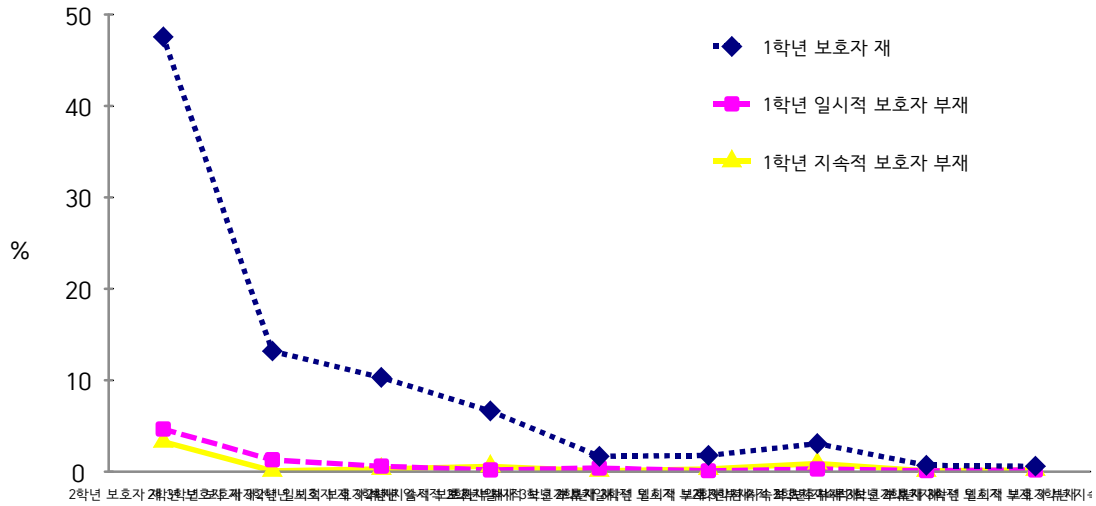
(N=1009)

1학년	2학년	3학년								
		보호자재			일시적 보호자부재			지속적 보호자부재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보호자재	보호자재	238 (45.25) ^a	242 (50.10) ^b	480 (47.57) ^c	78 (14.83)	55 (11.39)	133 (13.18)	59 (11.22)	45 (9.32)	104 (10.31)
	일시적	37	30	67	10	7	17	11	7	18
	보호자부재	(7.03)	(6.21)	(6.64)	(1.90)	(1.45)	(1.68)	(2.09)	(1.45)	(1.78)
	지속적	18	13	31	6	1	7	4	2	6
	보호자부재	(3.42)	(2.69)	(3.07)	(1.14)	(.21)	(0.69)	(.76)	(.41)	(0.59)
일시적 보호자부재	보호자재	24 (4.56)	23 (4.76)	47 (4.66)	3 (.57)	10 (2.07)	13 (1.29)	5 (.95)	1 (.21)	6 (0.59)
	일시적	1	1	2	2	2	4	1	0	1
	보호자부재	(.19)	(.21)	(.20)	(.38)	(.41)	(.40)	(.19)	(.0)	(.10)
	지속적	0	3	3	0	1	1	1	1	2
	보호자부재	(.0)	(.62)	(.30)	(.0)	(.21)	(.10)	(.19)	(.21)	(.20)
지속적 보호자부재	보호자재	13 (2.47)	20 (4.14)	33 (3.27)	6 (1.14)	3 (.62)	9 (.89)	0 (.0)	3 (.62)	3 (.30)
	일시적	2	4	6	0	1	1	2	1	3
	보호자부재	(.38)	(.83)	(.60)	(.0)	(.21)	(.10)	(.38)	(.21)	(.30)
	지속적	3	6	9	1	0	1	1	1	2
	보호자부재	(.57)	(1.24)	(.89)	(.19)	(.0)	(.10)	(.19)	(.21)	(.20)

a, b, c 괄호 속은 성별 또는 전체 분석대상 대비 해당 빈도의 백분율

<표 2>에서 보듯이, 전체 분석대상 아동 중 1학년 때 보호자재 아동은 85.5%, 일시적 보호자부재 7.8%, 지속적 보호자부재 6.6%로 나타났으나, 3학년 때 보호자재 상태의 아동은 67.2%로 감소하고 일시적, 지속적 보호자부재는 18.4%, 14.4%로 각각 증가하였다. 성별로 구분해 보면, 남아와 여아 모두 3년간 보호자재(45.25%, 50.10%), 1·2학년 보호자재→3학년 일시적 보호자부재(14.83%, 11.39%), 1·2학년 보호자재→3학년 지속적 보호자부재(11.22%, 9.32%), 1학년 보호자재→2학년 일시적 보호자부재→3학년 보호자재(7.03%, 6.21%), 1학년 일시적 보호자부재→2학년 보호자재→3학년 보호자재(4.56%, 4.76%)의 순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3년간 일시적 또는 지속적 보호자부재인 남아는 8명(1.52%), 여아는 7명(1.46%)이었다.

전체 아동의 학년별 방과후 보호자부재의 범주 변화를 보여주는 <그림 1>과 같이 Friedman 검증한 결과, 남아($\chi^2=89.11, p<.001$)와 여아($\chi^2=30.77, p<.001$) 모두 1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방과후 보호의 상태가 보호자재에서 보호자의 일시적 또는 지속적 부재 상태로 변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 전체 아동의 1학년, 2학년, 3학년의 방과후 보호자부재의 범주 조합별 빈도의 백분을 도식

연구문제2 즉 아동의 성별로 방과후보호에 따라 가정환경, 자기조절학습능력, 정서·행동문제가 각각 차이가 있는지 알기위해, 성별 방과후보호에 따른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치를 산출하고 평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첫째, <표 3>에서 가정환경에 속하는 가구소득 변인의 경우를 보면, 성인보호 남아($M=5425.54$, $SD=2861.76$)와 여아($M=5471.45$, $SD=2470.64$)의 가구소득 평균 각각은 자기보호 남아($M=4817.49$, $SD=2086.06$)와 여아($M=4941.51$, $SD=1986.66$)의 가구소득평균 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70$, $p<.01$; $t=2.57$, $p<.01$). 이에 방과후보호에 따른 남아와 여아 가정의 가구소득은 성인보호 가정이 자기보호 가정 보다 높다고 할 수 있었다. 가정환경 중 부모감독 변인의 경우 남아에서 방과후보호에 따른 차이가 없으나($t=.88$, $p>.05$) 여아에서 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t=1.99$, $p<.05$). 즉 자녀에 대한 관심은 방과후 성인보호 여아 부모가 자기보호 여아 부모보다 높다고 볼 수 있었다.

둘째, 아동의 성별로 방과후보호에 따른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차이를 알기 위해 t 검정한 결과, <표 3>에 제시된 같이 남아와 여아 모두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세 하위차원 중 성취가치를 제외한 학습시간관리($t=2.74$, $p<.01$; $t=2.59$, $p<.01$)와 행동통제($t=2.74$, $p<.01$; $t=2.59$, $p<.01$), 그리고 자기조절학습능력 전체($t=2.42$, $p<.05$; $t=2.01$, $p<.05$)의 평균점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아의 경우 성인보호 아동보다 자기보호 아동의 자기조절학습능력 전체($M=2.80$, $SD=.45$; $M=2.71$, $SD=.39$)와 하위능력으로서의 학습시간관리($M=2.52$, $SD=.61$; $M=2.38$, $SD=.52$), 행동통제($M=.63$, $SD=.15$; $M=.60$, $SD=.13$) 능력이 낮고, 여아의 경우도 성인보호 아동보다 자기보호 아동의 자기조절학습능력 전체($M=2.86$, $SD=.41$; $M=2.79$, $SD=.42$), 학습시간관리($M=2.60$, $SD=.55$; $M=2.47$, $SD=.55$), 행동통제($M=.65$, $SD=.14$; $M=.62$, $SD=.14$) 능력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3> 성별 방과후보호에 따른 측정변인의 기술통계치 및 차이검증 결과

측정 변인	하위변인 또는 하위차원	남아의 방과후보호					여아의 방과후보호				
		성인보호		자기보호		t	성인보호		자기보호		t
		M	SD	M	SD		M	SD	M	SD	
가정	가구소득	5425.54	2861.76	4817.49	2082.06	2.70**	5471.45	2470.64	4941.51	1986.66	2.57**
환경	부모관심	3.51	.46	3.48	.40	.88	3.55	.46	3.46	.47	1.99*
자기	성취가치	3.02	.47	2.97	.43	1.30	3.08	.43	3.03	.44	1.17
조절	학습시간관리	2.52	.61	2.38	.52	2.74**	2.60	.55	2.47	.55	2.59**
학습	행동통제	.63	.15	.60	.13	2.74**	.65	.14	.62	.14	2.59**
능력	전체	2.80	.45	2.71	.39	2.42*	2.86	.41	2.79	.42	2.01*
정서 문제	주의	2.24	.49	2.27	.47	-.81	2.05	.46	2.09	.50	-.88
	비집중	1.80	.50	1.87	.47	-1.57	1.79	.50	1.85	.50	-1.30
	공격성	1.42	.40	1.52	.42	-2.52**	1.49	.44	1.50	.42	-.37
	신체증상	1.93	.63	2.04	.60	-2.03*	2.11	.68	2.10	.68	.16
	사회적 위축	1.38	.39	1.50	.40	-3.62***	1.42	.41	1.47	.41	-1.34
	우울	1.75	.32	1.84	.32	-2.95**	1.77	.37	1.80	.35	-1.02
	전체	1.75	.32	1.84	.32	-2.95**	1.77	.37	1.80	.35	-1.02

$p < .05$, ** $p < 0.01$, *** $p < .001$

셋째, 방과후보호에 따른 정서·행동문제 평균점수의 차이를 *t*검정한 결과, <표 3>에서 보듯이 남아의 경우는 정서·행동문제의 하위변인 중 신체증상($t=-2.52$, $p<.01$), 사회적 위축($t=-2.03$, $p<.05$), 우울($t=-3.62$, $p<.001$) 그리고 정서·행동문제 전체($t=-2.95$, $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성인보호 남아보다 자기보호 남아의 신체증상($M=1.42$, $SD=.40$; $M=1.52$, $SD=.42$), 사회적 위축($M=1.93$, $SD=.63$; $M=2.04$, $SD=.60$), 우울($M=1.38$, $SD=.39$; $M=1.50$, $SD=.40$) 및 정서·행동문제 전체($M=1.75$, $SD=.32$; $M=1.84$, $SD=.32$)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었다. 반면 여아의 경우는 정서·행동문제의 5개 하위변인과 전체에서 방과후보호 집단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문제3 즉 아동의 성별 가정환경이 자기조절학습능력, 정서·행동문제와 각각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기위해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성별 가정환경과 자기조절학습능력 및 정서·행동문제간의 상관계수

측정 변인	하위차원 또는 하위변인	남아의 가정환경		여아의 가정환경	
		가구소득	부모감독	가구소득	부모감독
자기조절	성취가치	.08	.15***	.16***	.18***
학습능력	학습시간관리	.16***	.13**	.17***	.18***
	행동통제	.16***	.13***	.17***	.18***

	전체	.14 ^{***}	.16 ^{***}	.18 ^{***}	.21 ^{***}
정서· 행동문제	주의비집중	-.09 [*]	-.12 ^{**}	-.10 [*]	-.17 ^{***}
	공격성	-.06	-.13 ^{**}	-.17 ^{***}	-.10 ^{**}
	신체증상	.04	-.03	-.14 ^{**}	-.13 ^{**}
	사회적위축	-.06	-.07	-.02	-.11 [*]
	우울	-.04	-.10 [*]	-.15 ^{***}	-.24 ^{***}
	전체	-.07	-.13 ^{**}	-.15 ^{***}	-.20 ^{***}

* $p < .05$, ** $p < .01$, *** $p < .001$

먼저 가구소득과 자기조절학습능력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가구소득은 남아의 경우 자기조절학습능력의 하위차원 중 성취가치를 제외한 두 하위차원 및 전체의 상관계수가 .14~.16으로, 여아의 경우 자기조절학습능력의 모든 하위차원 및 전체의 상관계수가 .16~.18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남아와 여아 모두에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높다고 볼 수 있었다. 반면 가구소득과 정서·행동문제 간의 관계에서, 남아의 경우 정서·행동문제의 주의비집중 한 하위변인에서만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r = -.09$, $p < .05$) 여아의 경우는 사회적 위축을 제외한 4개 하위변인과 정서·행동문제 전체와의 관계 각각에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r = -.10 \sim -.17$)가 나타났다. 따라서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남아에 비해 여아는 전반적인 정서·행동문제의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었다.

가정환경 중 부모감독 변인과 자기조절학습능력 간의 관계를 <표 4>에서 보면, 남아($r = .13 \sim .18$)와 여아($r = .18 \sim .21$) 모두 자기조절학습능력의 3개 하위차원과 전체의 평균점수가 부모감독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부모의 감독 수준이 높을수록 남아와 여아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높다고 볼 수 있었다. 부모감독과 정서문제 간의 관계는 남아의 경우 신체증상과 사회적 위축의 두 하위변인을 제외한 세 하위변인과 전체에서($r = -.10 \sim -.13$), 여아의 경우 정서·행동문제의 하위변인 모두와 전체에서($r = -.10 \sim -.24$)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남아와 여아 부모의 감독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수준은 대체로 낮다고 볼 수 있었다.

연구문제4 즉 아동의 성별 방과후보호와 가정환경이 자기조절학습능력과 정서·행동문제 각각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이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 성별로 방과후보호, 가정환경의 두 하위변인인 가구소득과 부모감독 그리고 세 독립변인 사이의 2원 및 3원 상호작용 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회귀분석하고 종속변인별로 그 결과를 제시하면 <표 5>, <표 6>과 같다.

<표 5> 성별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대한 방과후보호와 가정환경의 회귀분석 결과

성	종속변인	유의 독립변인	B	β	조정된	R^2	F
					R^2	증가량	
남아	성취가치	부모감독	.14	.14 ^{**}	.02	.02	9.76 ^{**}
	학습시간	가구소득	3.22E-5	.14 ^{***}	.02	.02	8.61 ^{***}
	관리	부모감독	.15	.11 ^{**}	.04	.01	
		방과후보호	-.11	-.10 [*]	.04	.01	

행동통제	가구소득	8.04E-6	.14 ^{***}	.02	.02	8.61 ^{***}	
	부모감독	.04	.11 ^{**}	.04	.01		
	방과후보호	-.03	-.10 [*]	.04	.01		
자기조절	부모감독	.14	.14 ^{***}	.02	.02	8.71 ^{***}	
학습능력	가구소득	2.12E-5	.13 ^{**}	.04	.02		
전체	방과후보호	-.08	-.09 [*]	.04	.01		
여아	성취가치	부모감독	.16	.18 ^{***}	.03	.03	13.78 ^{***}
	가구소득	2.85E-5	.15 ^{***}	.05	.02		
학습시간	부모감독	.20	.17 ^{***}	.03	.03	14.03 ^{***}	
관리	가구소득	3.87E-5	.16 ^{***}	.05	.02		
행동통제	부모감독	.05	.01 ^{***}	.03	.03	14.03 ^{***}	
	가구소득	9.69E-6	.00 ^{***}	.05	.02		
자기조절	부모감독	.19	.21 ^{***}	.05	.05	18.46 ^{***}	
학습능력	가구소득	3.00E-5	.16 ^{***}	.07	.02		
전체							

* $p < .05$, ** $p < .01$, *** $p < .001$

<표 5>에서 독립변인들이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남아의 경우 먼저 살펴보면, 독립변인에 의한 유의한 예측변량의 절대적 크기는 작지만 성취가치($\beta = .14, p < .01$)와 자기조절학습능력 전체($\beta = .14, p < .001$)는 부모감독이, 학습시간관리($\beta = .14, p < .001$)와 행동통제($\beta = .14, p < .001$)는 가구소득이 제1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다. 방과후보호는 학습시간관리($\beta = -.10, p < .05$), 행동통제($\beta = -.10, p < .05$), 전체($\beta = -.09, p < .05$)에 있어 유의한 영향변인으로 추가되었다. 따라서 부모감독 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방과후 자기보호보다 성인보호를 받을수록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높고 방과후보호 보다는 부모감독과 가구소득의 상대적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었다. 여아의 경우는 자기조절학습능력의 하위차원과 전체의 종속변인들에서 일관되게 부모감독($\beta = .01 \sim .21$)이 제1의 영향변인으로, 가구소득($\beta = .00 \sim .16$)이 제2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아 부모의 감독 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높아지지만, 방과후보호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표 6> 성별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방과후보호와 가정환경의 회귀분석 결과

성	종속변인	유의 독립변인	B	β	조정된	R^2	F
					R^2	증가량	
남아	주의비집중	부모감독	-.13	-.12 ^{**}	.01	.01	7.60 ^{**}
		공격성	방과후보호×가구소득	5.51E-5	.14 ^{***}	.02	.02
신체증상	신체증상	부모감독	-.12	-.11 ^{**}	.03	.01	
		방과후보호	.10	.12 ^{**}	.01	.01	5.42 ^{***}
		방과후보호×가구소득	4.31E-5	.13 ^{**}	.02	.01	
		가구소득	1.50E-5	.09 [*]	.03	.01	

	사회적위축	방과후보호	.11	.09*	.01	.01	4.33*
	우울	방과후보호	.12	.15***	.02	.02	12.37***
	정서· 행동문제 전체	방과후보호	.08	.13**	.02	.02	7.53***
		부모감독	-.08	-.11**	.03	.01	
		방과후보호×가구소득	2.85E-5	.11**	.04	.01	
여아	주의비집중	부모감독	-.18	-.18***	.03	.03	14.94***
	공격성	가구소득	-3.01E-5	-.14**	.03	.03	7.80***
		방과후보호×가구소득	4.57E-5	.10*	.04	.00	
		부모감독	-.10	-.10*	.05	.01	
	신체증상	가구소득	-2.51E-5	-.13**	.02	.02	8.08***
		부모감독	-.11	-.12**	.03	.01	
	사회적위축	부모감독	-.17	-.12**	.01	.01	6.62**
	우울	부모감독	-.19	-.21***	.06	.06	14.35***
		가구소득	-2.21E-5	-.12**	.07	.01	
		방과후보호×가구소득	7.20E-5	.09*	.08	.00	
		×부모감독					
	정서· 행동문제 전체	부모감독	-.15	-.20***	.04	.04	16.04***
		가구소득	-2.24E-5	-.14**	.06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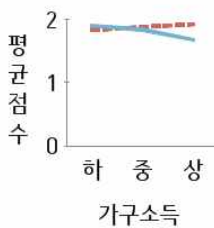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회귀분석한 결과, <표 6>에서 보듯이 남아의 경우, 부모감독은 주의비집중($\beta = -.12, p < .01$)의 제1 영향변인으로, 공격성($\beta = -.11, p < .01$)과 정서·행동문제 전체($\beta = -.11, p < .01$)의 추가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다. 방과후보호는 신체증상($\beta = .12, p < .01$), 사회적 위축($\beta = .09, p < .05$)과 우울($\beta = .15, p < .001$) 및 정서문제 전체($\beta = .13, p < .01$)의 제1 영향변인으로 나타났고, 가구소득과 상호작용 변인으로는 공격성($\beta = .14, p < .001$)의 제1 영향변인으로, 신체증상($\beta = .13, p < .01$)과 전체($\beta = .11, p < .01$)에의 영향을 추가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은 신체증상($\beta = .09, p < .05$)에서만 추가 영향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남아 부모의 감독 수준이 낮을수록, 방과후 자기보호를 할수록 정서·행동문제 수준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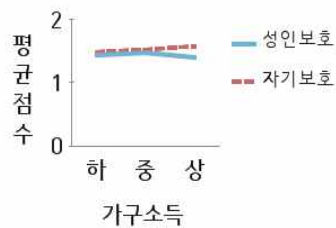
남아의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방과후보호와 가구소득의 상호작용을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먼저 남아의 공격성에 대한 방과후보호와 가구소득의 상호작용을 도식화한 <그림 2-a>을 보면, 자기보호 아동은 성인보호 아동에 비해 가구소득하 집단에서는 공격성이 상대적으로 낮지만($M = 1.83, SD = .51; M = 1.90, SD = .48$), 가구소득중 집단($M = 1.88, SD = .40; M = 1.84, SD = .46$)에서는 상

대적으로 높고, 가구소득상 집단($M=1.92, SD=.48; M=1.68, SD=.53$)에서는 유의하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t=-3.05, p<.01$). 이와 대조적으로 <그림 2-b> 신체증상의 경우 자기보호 아동이 성인보호 아동보다 가구소득하 집단($M=1.48, SD=.41; M=1.43, SD=.40$)과 가구소득중 집단($M=1.52, SD=.42; M=1.47, SD=.39$)에서 상대적으로 높지만, 가구소득상 집단($M=1.57, SD=.44; M=1.40, SD=.41$)에서는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따($t=-2.68, p<.01$). <그림 2-c> 정서·행동문제 전체의 경우는 자기보호 아동이 성인보호 아동보다 가구소득하 집단($M=1.83, SD=.32; M=1.79, SD=.30$)과 가구소득중 집단($M=1.86, SD=.30; M=1.79, SD=.30$)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가구소득상 집단에서는 자기보호 아동($M=1.83, SD=.35$)의 정서·행동문제 수준이 성인보호 아동($M=1.69, SD=.35$)보다 유의하게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t=-2.62,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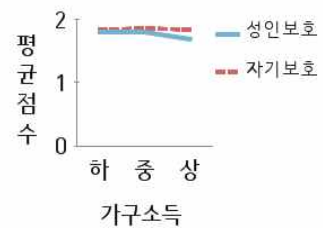
<표 6>에서 여아의 경우를 보면, 부모감독은 주의비집중($\beta=-.18, p<.001$), 사회적 위축($\beta=-.12, p<.01$), 우울($\beta=-.21, p<.001$), 정서·행동문제 전체($\beta=-.20, p<.001$)의 제1 영향변인인면서 공격성($\beta=-.10, p<.05$)과 신체증상($\beta=-.12, p<.01$)의 추가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은 공격성($\beta=-.14, p<.01$), 신체증상($\beta=-.13, p<.01$)의 제1 영향변인으로, 우울($\beta=-.12, p<.01$)과 전체($\beta=-.14, p<.01$)의 추가 영향변인으로 작용하며, 방과후보호는 가구소득과의 2원 상호작용으로써 공격성($\beta=.10, p<.01$)에 제2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에 대한 방과후보호·가구소득·부모감독의 3원 상호작용이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beta=.09, p<.05$). 따라서 여아 부모의 감독 수준이 낮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정서·행동문제의 수준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었다.



<그림 2-a> 남아의 공격성에 대한 방과후보호와 가구소득의 상호작용



<그림 2-b> 남아의 신체증상에 대한 방과후보호와 가구소득의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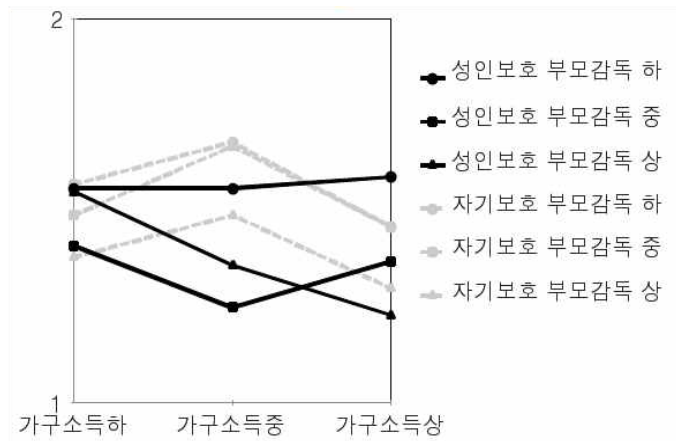
<그림 2-c> 남아의 정서·행동문제 전체에 대한 방과후보호와 가구소득의 상호작용

<그림 2> 남아의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방과후보호와 가구소득의 상호작용 도식

나아가 여아의 공격성의 경우 독립변인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본 결과, 성인보호에 비해 자기보호 아동의 공격성은 가구소득하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지만($M=1.89, SD=.48; M=1.94, SD=.49$) 가구소득중 집단에서는 차이가 없었다($M=1.86, SD=.51; M=1.86, SD=.48$). 그러나 가구소득상 집단에서는 자기보호 아동의 공격성($M=1.81, SD=.49$)은 성인보호 아동의 공격성($M=1.62, SD=.47$)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므로($t=-2.35, p<.05$) 남아의 공격성에 대한 방과후보호와 가구소득의 상호작용 효과와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었다.

<그림 3>은 여아의 우울 수준에 대한 방과후보호·가구소득·부모감독의 3원 상호작용을 도식화한 것이다. 방과후보호별·가구소득별·부모감독별 집단 중 일부의 해당 사례수가 적어 통

계적으로 추가분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으나 <그림 3>에 나타난 경향을 통해, 자기보호 아동의 경우 세 소득수준 모두에서 부모감독의 수준이 낮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고, 특히 가구소득하 집단에서 부모감독 수준이 높은 아동은 성인보호 아동보다도 우울 수준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성인보호 아동의 경우 부모감독의 수준이 ‘하’ 수준으로 낮지만 않으면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우울 수준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었다.



<그림 3> 여아의 우울에 대한 방과후보호 · 가구소득 · 부모감독의 상호작용 도식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양친부모의 맞벌이가정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성별로 입학 후 3년간 학년에 따른 방과후보호의 변화 양상, 성별 방과후보호와 가정환경이 자기조절학습능력, 정서·행동문제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결과에 따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의 성별로 초등학교 입학 후 3년간 방과후보호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남아와 여아에서 3년간 방과후 보호자재의 상태인 아동은 약 45%와 50%이며, 3년간 일시적 또는 지속적 보호자부재 상태인 아동은 각각 약 1.5%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보호자재의 상태에서 보호자의 일시적 또는 지속적 부재 상태로 변화하여 1학년 때 전체 아동의 1.4%에서 3학년 때는 32.8%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방과후보호의 경향은 KCYPS 1차년도 초등 1학년과 4학년 패널 아동의 자기보호 비율이 1학년(26.1%)보다 4학년(44.7%)에서 높고 성인보호자에 의한 방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김지경과 김균희(2013)의 결과와 일치하지만 초등 고학년에서 학년과 자기보호 여부가 관계없다는 김세원과 손주영(2011)의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두 선행연구는 가족 특성으로서의 맞벌이 여부, 양부모나 한부모 등의 가족구조 변인을 통제하지 않았고 자기보호 일수나 일일 평균 자기보호 시간의 한 요인만으로 자기보호 여부를 결정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주의가 요구되었다. 그러나 아동의 연령과 학년이 높아질수록 자기보호의 상태에 더 많이 놓이게 된다는 보고들(Bandon, 1999; Casper & Smith, 2002)은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 주었다.

아동의 성별 비교를 하면, 남아는 여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방과후 보호자재 상태의 아동이 적고, 1·2학년 때 보호자재의 상태를 3학년이 되면 벗어나는 변화를 경험하는 아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김세영, 손주영, 2011; 김지경, 김균희, 2013)와 달리 나타난 결과지만 여아(10세)에 비해 남아(8.7세)를 더 어린 시기에 자기보호 상태로 두며(McMurry & Kazanjian, 1982) 남아가 여아보다 방임을 더 자주 경험한다는 이은주(2008)의 결과와 일관된 것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 나타난 1학년과 3학년에서의 방과후 보호자의 일시적 또는 지속적 부재 경험의 비율은 선행연구(김세원, 손주영, 2011; 김지경, 김균희, 2013)에서 보고된 자기보호 아동 비율과 비교해 큰 차이로 낮은 것이었다. 이는 본 연구의 분석대상 아동이 양친부모 맞벌이가정 아동으로, 자기보호의 비율이 높은 한부모가정을 제외하고 저소득가정과 같은 취약한 환경의 아동에 한정하여 표집된 아동이 아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었다. 또한 맞벌이가정의 부모는 상시 부모 보호자의 부재에 따른 자기보호 일수의 증가 가능성이 높음(김지경, 김균희, 2013)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어린 초등학교생이므로 방과후 돌봄서비스, 학원수강 등 방과후 자녀 보호를 위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초등학교 저학년 3년간 방과후 성인 보호자와 함께 있는 아동을 제외한 남아의 55%, 여아의 50%가 최소 1년 이상 방과후 보호자의 일시적 또는 지속적 부재를 경험한다는 결과는 부모 인식의 개선과 더불어 가구소득에 관계없이 맞벌이가정 아동에게 적절한 방과후보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었다. 왜냐하면 저소득 맞벌이가정에서는 자기보호의 선택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학령기에 접어든 자녀는 일정 시간 학교에서 보호되고 영유아에 비해 어느 정도 자기보호가 가능하므로 자기보호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맞벌이가정 양친부모가 오히려 방과후 자기보호를 양육의 대안으로 선택한다는 인식(김명숙, 정영숙, 1997; 김세원, 손주영, 2011; 이재연, 강성희, 1995)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동의 성별로 방과후보호에 따른 가정환경, 자기조절학습능력 및 정서·행동문제 각각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가정환경으로서의 가구소득은 남아와 여아 모두에서 성인보호 가정이 자기보호 가정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가정에서 자기보호 아동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보고(김지경, 김균희, 2013; 보건복지가족부, 2009; Cain & Hofferth, 1989)와 일관된 것으로 생계유지를 위해 일 해야하는 저소득층 취업모가 자녀양육 대행 비용의 부담이 쉽지 않아 자녀를 스스로 보호하도록 방치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최경순, 정현희, 1996)으로 추측할 수 있었다.

아울러 가정환경으로서의 부모감독은 방과후보호에 따라 남아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여아에서는 자기보호에 비해 성인보호 부모의 감독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가정 부모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성과 관계없이 방과후 안전한 환경의 조성 과 안전한 보호에 대한 염려가 크다(최경순, 정현희, 1996). 그러나 방과후 자기보호에 따른 안전의 위협에 대처하는 데 있어 남아보다 여아가 생물학적으로 불리하다고 인식하여 자녀에 대한 감독 수준을 높인 부모가 성인보호를 선택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앞서 방과후 자기보호로 변화하는 비율이 여아보다 남아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의 결과로 보였다.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방과후보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성별로 살펴본 바, 남녀 아동에서 공통적으로 성인보호 아동이 자기보호 아동에 비해 성취가치를 제외한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가치는 학습의 동기조절 차원을 구성하는 요인으로서 학습이 가치있다고 지각하는 하위차원이다(양명희, 2000). 유아기부터의 높은 사교육 참여(유숙경, 이승희, 2012)에서 보듯이 방과후보호의 형태에 관계없이 학업성취의 가치는 강조되고 있는 반면 학업시간의 계획과 학업 관련 행동의 통제를 요구하는 행동조절 요인에 속하는 행동통제 및 학습시간관리 하위차원의 능력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에게는 방과후 성인의 부재 시 스스로 학습을 계획하고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윤소영 등, 2004)에 결과된 것으로 해석되었다.

아동의 성별 방과후보호와 정서·행동문제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남아와 여아에서 주의비집중, 공격성과 같은 외현적 행동문제는 방과후보호에 따른 차이가 없고,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과 같은 내재적 정서문제 그리고 정서·행동문제 전체는 남아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기부터 외현적 행동문제보다 내재적 정서문제가 더 많이 나타나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내재적 문제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정서·행동문제의 발달 특성(김은주, 이승희, 2013; 유숙경, 이승희, 2012) 상 방과후보호 형태에 따른 내재적 정서문제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였다. 그러나 방과후보호에 따른 여아와 남아의 불안 차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비밀관적이며(김명숙, 정영숙, 1997; 이재연, 강성희, 1996) 자기보호 아동 중에서는 여아의 불안이 남아보다 높다는 보고(이준호, 2012; 최정미, 오선영, 2004)가 있으므로 여아의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방과후보호 변인의 영향은 다른 변인과 함께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되었다.

또한 아동의 성별 가정환경과 자기조절학습능력 및 정서·행동문제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기조절학습능력은 남아와 여아 모두에서 가구소득, 부모감독 변인과 각각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조절학습능력이 가정환경의 지위변인으로서의 가구소득(Raver, Blackburn, Bancroft, & Trop, 1999), 과정변인으로서의 양육태도(신명희, 이혜원, 2010)와 정적 관계가 있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었다. 정서·행동문제는 여아의 경우 가정환경 두 변인과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었고, 남아의 경우는 가구소득은 주의비집중과, 부모감독은 정서·행동문제의 일부 하위변인들 및 전체와 각각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정서발달과 학교생활적응도가 낮고(박순주, 심혜원, 2012), 부모의 실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최경순, 정현희, 1996)는 보고와 일관된 결과로 볼 수 있었다. 다만 선행연구와 달리 가구소득이 정서·행동문제의 하위변인들 대부분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은 것은 단일요인으로 보다는 다른 변인과의 관계를 통해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었고 추후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아동의 성별 방과후보호와 가정환경이 자기조절학습능력과 정서·행동문제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분석하고 먼저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남아는 부모감독과 가구소득이 1순위 또는 2순위로 영향을 미치며 방과후보호 변인이 제3의 영향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아의 경우는 모든 하위차원과 전체에서 부모감독, 가구소득의 순으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대한 부모감독과 가구소득의 영향은 가정환경으로서의 부모의 감독이 자기조절학습능력의 동기조절과 행동조절 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신명희, 이혜원, 2010) 가정환경의 사회경제적 지위변인은 심리적 지원이나 부모-자녀간 상호작용 전략을 통해 자기조절학습능력에 간접 영향을 미치거나 학업성취·자기학습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는 선행연구(손진희, 김안국, 2006; 신명희, 이혜원, 2010; 오숙영, 2012; 윤경희, 김경희, 2002; 이정란, 2003) 결과들과 같은 맥락에서 수용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주어진 시간을 자기주도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이 부족하고(서혜전, 2012) 본격적으로 학업성취가 중요시되기 전인 학령기 초기의 아동으로서 학업성취를 실제적으로 촉진하는 자기조절학습능력(Zimmerman, 1990)의 발달 기초를 마련하는 시기에서부터 부모의 감독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결과였다.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대한 독립변인의 상대적 영향력 분석에서 주목되는 것은 방과후보호에 따라 여아의 자기조절학습능력 차이가 유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에서만 유의한 영향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결과였다. 남아에게는 부모감독과 같이 아동에게 필요한 관심, 양육, 보호를 제공하는 성인보호자 존재의 내용 뿐 아니라 방과후 성인보호자의 물리적 존재 자체가 학습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행동통제에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초등 고학년 자기보호 아동은 가정내에서 학업을 위한 활동에 시간을 적게 활용하고 있고(김세원, 손주영, 2011) 저학년 자기보호 아동은 방과후 집에 돌아와 숙제와 독서, 비디오테이프를 보거나 게임을 주로 하는데(최정미, 오선영, 2004), 특히 남아가 집에 혼자 있으며 하는 컴퓨터게임이나 TV시청에는 적절한 통제와 감독이 필요하다(이준호, 2012). 남아가 여아에 비해 사회정서적 행동기술이 부족하고(Winsler et al., 2014), 행동문제를 많이 보인다(Gray et al., 2014)는 점에 비추어 방과후 성인보호자의 부재는 적절한 감독의 부재와 함께 아동 특히 남아의 학습 발달 권리를 침해(이준호, 2012)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방과후보호와 가정환경의 상대적 영향 분석에서는 남아의 경우 정서·행동문제의 하위변인 다수에서 방과후보호가 제1 영향변인으로 나타났고, 방과후보호와 가구소득의 상호작용, 부모관심의 상대적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의 경우는 부모관심, 가구소득이 중요 영향변인으로 작용하며 방과후보호와 가정환경 변인 간의 상호작용 변인이 영향력을 추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 대해 본 연구의 독립변인들이 미치는 영향의 양상이 자기조절학습능력에서의 양상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남아에 있어 방과후보호의 영향은 자기조절학습능력이 학습 관련 시간과 행동의 통제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정서·행동문제의 수준에도 영향미침은 수용될 수 있는 결과였다. 또한 자기보호 아동의 부모가 여아에 비해 남아일수록 가정에서의 적응문제를 더 보인다고 평가한다는 이재연과 강성희(1996)의 연구결과는 여아와 달리 내재적 및 외현적 정서·행동문제 전반에 방과후보호가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 주었다.

남아의 정서·행동문제와 여아의 공격성에서 나타난 방과후보호와 가구소득 상호작용 변인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바,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자기보호 아동이 성인보호 아동보다 해당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가정에 비해 고소득가정 자기보호 아동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지만, 고소득층 고학력의 전업주부가 자아실현을 위해 취업할 확률이 높아지고 이들이 고소득층 지역환경을 안전하다고 인식하여 자녀를 자기보호 상태에 둬으로써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자기보호 비율이 높아진다는 보고가 발견된다(Bandon, 1999; Kerrebrock & Lewis, 1999; Vandivere et al., 2003). 이에 맞벌이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결과는 방과후 자기보호 아동의 돌봄 서비스가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선별적 서비스가 아니라 고소득가정의 자기보호 아동을 포함하는 보편적 서비스로 전환해야 한다는 김지경과 김근희(2013)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것이었다.

여아의 우울에 대한 방과후보호, 가구소득, 부모감독의 상호작용 효과를 통해 나타난 우울 수준을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자기보호 아동의 경우 부모감독 수준이 높을 때 우울 수준이 낮고 성인보호 아동의 경우도 가구소득에 관계없이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가정 자기보호 아동의 우울은 부모감독 수준이 높을 때 성인보호 아동의 우울보다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전 분석에서 방과후보호 단독변인에 따라서는 우울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부모감독 및 가구소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저소득가정 부모의 높은 자녀감독 수준이 자녀의 우울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기보호 아동은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고 자기보호 시간을 불안하게 보내지만(‘Feel Badly’ : Garbarino, 1984) 특별히 여아는 남아보다 불안을 많이 보이고(이재연, 강성희, 1996; 최정미, 오선영, 2004), 지속적 자기보호 상황을 부모에게 방임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이준호, 2012). 따라서 생계를 위해 맞벌이를 선택하고, 양육 대행비용 부담으로 자녀의 자기보호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저소득가정 부모가 자녀에게 보이는 관심과 관심에 따른 행동은 초등 저학년 여아의 우울과 같은 내면적 문제를 예방하고 조절하는데 중요함을 시사해 주었다.

끝으로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방과후보호, 가정환경과 학령기 학습의 기초를 형성하는 자기조절학습능력 및 심리사회적 적응을 위한 내재적·외현적 문제와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영향을 분석·확인할 수 있었으나 회귀모형에 의한 설명변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이 각 독립변인의 설명력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는데 있었음을 강조하더라도 이 같은 결과는 본 연구에서 다른 독립변인 외에 초등 저학년 아동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이나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영향력이 큰 변인의 역할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긍정적 양육방식이 자기조절학습능력이나 학교생활적응과 관련되는 양육방식으로 보고되었고(김은지, 2014; 박순주, 심혜원, 2012; 신명희, 이혜원, 2010) 방과후 학원수강이나 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이 증가하고 있으며(교육부, 2014; 김세원, 손주영, 2011) 사교육 참여가 어린 아동의 심리적 부적응을 유발할 수 있다(유숙경, 이승희, 2012)는 보고들은 본 연구의 독립변인들만으로 종속변인에의 영향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할 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첫째, 학령기 아동의 방과후보호 관련 연구로는 가장 어린 1학년 시기부터 3년간의 종단자료를 처음 사용하여 맞벌이 양친부모 가족의 초등 저학년 아동에서 방과후보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아동의 자기조절학습능력과 정서·행동문제와 관련하여 입학 후 3년간의 방과후보호 형태와 가정의 지위적·과정적 환경 모두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방과후보호와 발달 관련 연구는 아동의 성별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예로서, 방과후보호 형태의 선택은 남아에게 더욱 중요하였다. 셋째, 정서·행동문제와 관련하여 고소득가정의 자기보호 아동에 대한 관심, 부모감독의 조절적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하였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양친부모로 구성된 맞벌이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부터 일찍 자기보호가 시작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한부모 가정과 같은 더 열악한 방과후보호 조건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아동이 있고(김세원, 손주영, 2011), 내면적·외현적 문제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으므로(김은주, 이승희, 2013) 방과후 자기보호 아동을 위한 지원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볼 수 있었다. 이에 가구소득을 구분하지 않고 보편적인 자기보호 아동 서비스를 위한 정책

적 지원(교육부, 2014) 확대뿐 아니라 학습지원과 적응력 향상을 위한 초등 저학년 아동에게 맞는 프로그램 개발(예; 박명화, 2013), 참여 여건이 불리하지만 그들의 부모를 위한 예방적 부모교육(박순주, 심혜원 2012; 이수진, 오경자, 2014), 그리고 교사가 아동의 내면화된 정서·행동문제의 발견과 적절한 지원(장미순, 김진호, 2014)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 모색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언할 수 있겠다. 또한 관련 추후연구는 고소득 맞벌이가정 아동을 고려 대상으로 포함해야 하며 아동발달에 대한 자기보호가 갖는 긍정적 영향(이재연, 강성희, 1996; 이준호, 2012)에 초점을 맞추고, 초등 저학년부터 중단적으로 발달과정을 추적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강희경 (2003). 빈곤가족에서의 학령기 아동의 자존감: 제주도내 초등학교 아동을 중심으로. **아동간호학회지**, 9(3), 301-308.
- 교육부 (2014). 초등 방과후 돌봄 확대·연계 운영 계획 발표. 보도자료. <http://www.moe.go.kr/web/100026/ko/board/view.do?bbsId=294&pageNo=10¤tPage=0&encodeYn=Y&boardSeq=52435&mode=view>. 출력일 2014년 2월 2일.
-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간이 정신진단검사**.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 김광혁 (2007).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청소년기 아동의 학업성취도 발달궤적에 미치는 영향-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아동학회지**, 28(5), 127-141.
- 김명숙, 정영숙 (1997). 방과후 자기보호와 성인보호 아동의 적응. **한국영유아보육학**, 9, 183-196.
- 김선희, 김경연 (1998).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문제 척도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4), 155-166.
- 김세영 (2006).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른 인터넷 활동 유형, 자기통제력, 자기조절학습능력 및 학업성취도의 차이.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세원 (2003). 사회적 지지가 학대경험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세원, 손주영 (2011). 저소득가정 아동의 자기보호와 적응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 **동광**, 107, 35-89.
- 김은주, 이승희 (2013). 초등학생 6학년 자아탄력성과 정서행동문제의 관계 및 학업성취수준별 차이. **정서·행동장애연구**, 29(2), 25-44.
- 김은지 (2014). 아동의 방과 후 자기보호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자아탄력성과 부모 양육방식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지경, 김균희 (2013). 아동의 방과 후 자기보호 일수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한국생활과학회지**, 22(1), 1-15.
- 김혜금, 양숙경 (2014). 성별에 따라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방임학대와 지역사회 인식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0(5), 117-131.
- 박명화 (2013). 외현화 행동문제를 가진 아동의 교우관계와 사회적기술 향상을 위한 분노관리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정서·행동장애연구**, 29(2), 45-67.
- 박순주, 심혜원 (2012). 긍정적 부모양육태도, 자아탄력성, 자기조절학습이 빈곤아동의 학교생활

- 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12), 113-135.
- 백정재, 이재연 (1997). 빈곤아동이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 **생활과 학연구지**, 12(1), 71-93.
- 보건복지가족부 (2009). 한국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 보건복지부 (2014). 2014년도 지역아동센터 운영매뉴얼. https://www.icareinfo.info/NEW_USR_main.asp?%=CENTERINFO/DATA/DATA09/view&bbs_no=196&page=1&bbs_option_cd=&search_option=&search_value=. 출력일 2014년 8월 31일.
- 서혜전 (2012). 방과후 방치와 아동의 정서발달과의 관계에서 독서의 매개효과. 제2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학술대회 자료집(pp. 531-546).
- 손진희, 김안국 (2006). 가정환경, 자아개념, 자기학습량과 학업성취의 관계. **아시아교육연구**, 7(1), 235-265.
- 신명희, 이해원 (2010). 가정환경과 자기조절학습의 관계. **아시아교육연구**, 11(2), 113-134.
- 양명희 (2000). 자기조절학습의 모형 탐색과 타당화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여성가족부 (2014a). 여성인력개발.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2_07_01a1.jsp?viewfnc1=0&viewfnc2=1&viewfnc3=0&viewfnc4=0&viewfnc5=0&viewfnc6=0. 출력일 2014년 9월 1일.
- 여성가족부 (2014b). 여성인력 관련 주요통계.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2_07_04d1.jsp?func=view¤tPage=0&key_type=&key=&search_start_date=&search_end_date=&class_id=0&idx=694397. 출력일 2014년 9월 1일.
- 오선영, 최정미 (2004). 취업모의 양육태도, 자녀의 방과 후 보호형태와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3(5), 711-721.
- 오숙영 (2012). PLS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한 부모 SES, 사교육, 자기조절학습능력, 학업성취간의 관계 연구. **교육문제연구**, 42, 203-243.
- 유숙경, 이승희 (2012). K-CBCL 1.5와 Gottman의 양육방식 유형에 의한 유아의 정서행동문제와 어머니의 양육방식과의 관계. **정서·행동장애연구**, 28(2), 1-22.
- 윤경희, 김경희 (2002). 중학생의 가정환경, 자아개념, 학업성취의 관계. **교육이론과 실천**, 12(3), 5-25.
- 윤소영, 안창희, 하은아, 서선영, 전해인 (2004). 맞벌이 부부자녀를 위한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 제안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8(3), 127-142.
- 윤영애 (2010). 부모가 지각한 양육태도, 청소년이 지각한 양육태도,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봉주, 조미라 (2011). 방과 후 방치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36, 1-27.
- 이수진, 오경자 (2014). 부주의 및 과잉행동 문제의 하위집단 형성에 미치는 아동 기질과 양육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3(2), 279-298.
- 이은주 (2008).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아동방임 실태와 예측요인. **아동과 권리**, 12(4), 547-566.
- 이재연, 강성희 (1996). 자기보호 아동의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6, 1-21.
- 이정란 (2003). 유아의 자기조절 구성요인 및 변인에 대한 구조분석.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준호(2012). 방과후 자기보호의 예측요인 및 초등학교생의 부정적 자아개념에 대한 자기보호의 영향. 제2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학술대회 자료집(pp. 755-780).
- 이준호, 박현정 (2012). 맞벌이의 교육적 기회비용. *아시아교육연구*, 13(3), 27-59.
- 임선아 (2013). 민주적 부모양육태도가 아동의 자기조절학습능력, 자존감, 학교적응에 미치는 구조모형 비교: 저소득층 아동과 비저소득층 아동. *교육심리연구*, 27(1), 125-142.
- 장미순, 김진호 (2014). 초등학교 학생 문제행동에 대한 교사 인식 연구. *정서·행동장애연구*, 30(2), 435-457.
- 조봉환, 임경희 (2003). 아동정서·행동문제 자기보고형 평정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4), 729-746.
- 천희영, 옥경희, 김미혜 (2001). 학령기 아동의 자기보호와 부모감독에 따른 또래관계 및 인지적 자기능력 지각. *대한가정학회지*, 39(10), 153-168.
- 최경순, 정현희 (1996). 저소득층 취업모 자기보호 아동의 사회적 능력, 또래관계 및 정서발달. *아동학회지*, 17(2), 107-119.
- 최정미, 오선영 (2004). 초등학교 저학년의 방과후 보호형태에 따른 생활실태 및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8(2), 85-97.
- 통계청, 여성가족부 (2014). 2014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http://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327975. 출력일 2014년 9월 1일.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제1~3차 조사 데이터 유저가이드. http://archive.nypi.re.kr/sub.asp?BID=B36&idx=2096&BoardType=view&page=1&Search_m=&Search_t=&Mcode=C030000. 출력일 2014년 1월 30일.
- 허묘연 (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 척도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Aizer, A. (2004). Home alone: Supervision after school and child behavior.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8(9-10), 1835-1848.
- Bandon, P. D. (1999). Determinants of self-care arrangements among school-age children.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1(6), 497-520.
- Cain, V. S., & Hofferth, S. L. (1989). Parental choice of self-care for school-age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 the Family*, 51(1), 65-77.
- Casper, L. M., & Smith, K. E. (2002). Dispelling the myths: Self-care, class and race. *Journal of Family Issues*, 23(6), 716-727.
- Chen, X., Dong, Q., & Zhou, H. (1997). Authoritative and authoritarian parenting practices and social and school performance in Chinese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1(4), 855-873.
- Dishion, T. J., & McMahon, R. J. (1998). Parental monitoring and the prevention of child and adolescent problem behavior: A conceptual and empirical formulation.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1(1), 61-75.
- Garbarino, J. (1984). Can American families afford the luxury of childhood? Paper presented at the National Conference on Latchkey Children (Boston, MA, May 17-18, 1984).
- Gray, S. A. O., Carter, A. S., Briggs-Gowan, M. J., Jones, S. M., & Wagnmiller, R. L. (2014). Growth trajectories of early aggression, overactivity, and inattention: Relations to

- second-grade reading. *Developmental Psychology*, 50(9), 2255-2263.
- Green, K. M., Hynes, K., & Doyle, E. A. (2011). Self-care among school-aged children of immigrant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3(5), 783-789.
- Halpern, R. (1992). The role of after-school programs on the lives of inner-city children: A study of "urban youth network". *Child Welfare*, 71(3), 215-230.
- Kauffman, J. M., & Hallahan, D. P. (Eds.) (1981). *Handbook of special educat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Kerrebrock, N., & Lewis, E. M. (1999). Children in self-care. *The Future of Children*, 9(2), 151-160.
- McMurry, G., & Kazanjian, D. (1982). Day care and the working poor. *Child and Youth Care Quarterly*, 18(2), 131-140.
- Paris, S. G., & Newman, R. S. (1990). Developmental aspects of self-regulated learning. *Educational Psychologist*, 25(1), 87-102.
- Pintrich, P. R. (1995). Understanding self-regulated learning. In P. R. Pintrich (Ed.), *Understanding self-regulated learning* (pp. 3-13).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Raver, C. C., Blackburn, E. K., Bancroft, M., & Trop, N. (1999). Relations between effective emotional self-regulation, attention, attentional control, and low-income preschoolers: Social competence with peers. *Early Education & Development*, 10(3), 333-350.
- Rodman, H., & Pratto, D. J. (1987). Child's age and mother's employment in relation to greater use of self-care arrangements for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3), 573-578.
- Rodman, H., & Pratto, D. J., & Nelson, R. S. (1985). Child care arrangements and children's functioning: A comparison of self-care and adult-care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1(3), 413-418.
- Vandivere, S., Tout, K., Zaslow, M., Calkins, J., & Caspizzino, J. (2003). Unsupervised time: Family and child factors associated with self-care. *Occasional Paper*, 71. Washington, D. C.: The Urban Institute.
- Votruba-Drzal, E., Coley, L. R., & Chase-Lansdale, L. P. (2004). Child care and low-income children's development: Direct and moderated effects. *Child Development*, 75(1), 296-312.
- Winsler, A., Kim, Y. K., & Richard, E. R. (2014). Socio-emotional skills, behavior problems, and Spanish competence predict the acquisition of English among English language learners in poverty. *Developmental Psychology*, 50(9), 2242-2254.
- Zimmerman, B. J. (1990). Self-regulated learning and academic achievement: An overview. *Educational Psychologist*, 25(1), 3-17.
- Zimmerman, B. J., & Martinez-Ponz, M. (1986). Development of a structured interview for assessing student use of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ie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3(4), 614-628.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 of after-school guardians' absence types during the first 3 school years, and the relations of after-school care, family environment(family income, parental monitoring) to self-regulatory learning ability and emotional-behavioral problems in each gender of early school-age children from dual income families. The data from 526 boys and 483 girls among 3rd graders of Korean Child and Youth Panel Survey(KCYPS) were statistically analyzed by Friedman's test, t-test, correlational coefficient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45% of boys and 50% of girls were with a guardian for their after-school care in each of the first 3 school years and after-school care had changed gradually into the types of temporal or contingent absence of a guardian. Family income and children's self-regulatory learning ability were different from adult-care and self-care in each gender, but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parental monitoring of girls and emotional-behavioral problems of boys according to the care types. Both of boys and girls showed that family environment meaningfully related with the ability and the problems, and also showed the relatively different effects of after-school care and family environment on those ability and problems variables. The results suggested some implications for after-school care.

▶ *Key Words* : *after-school care, parental monitoring, family income, self-regulatory learning ability, emotional-behavioral problems, children*

논문투고 2014. 10. 15.
수정원고접수 2014. 11. 27.
최종게재결정 2014. 12. 06.